**삼하1121(1) Note**

**Cross check 삿0950-53**

삿0950. 그후에 아비멜렉이 데베스로 가서, 데베스를 대적해 진(陣)을 치고, 그것을 취하니라,

삿0951. 그러나 성(城) 안에 견고한 망대가 있었느니라, 이에 모든 남자들과 부인들이, 또 그 성(城)의 모든 그들이 거기로 달아나서, 그것을 닫고, 망대의 정상으로 올라가니라,

삿0952. 그리고 아비멜렉이 망대에로 와서, 그것과 싸우니라, 그리고 그것을 불로써 태우기 위하여 망대의 문에로 어렵게 가니라,

삿0953. 그리고 어떤 부인이 맷돌의 한 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로 내던지니라, 그리고 그의 두개골을 모두 깨뜨리니라(라짜쯔:산산조각 나다,깨뜨리다,타박상을 입히다,눌러 부수다,낙담시키다,압박하다,서로 다투다),